

지역 매아리

부안농협 사랑나눔 바자회 펼쳐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농가주부모임(회장 김미훈) 회원들이 아름다움을 키워 따뜻함을 전하려고 사랑 나눔 바자회를 부안 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과 농협 앞 마당에서 펼쳐졌다.

지난 15일 농가주부모임 60여 회원들이 직접 재배한 우리 농산물로 먹거리를 정성껏 준비한 청국장 팔죽, 두부 및 목, 장아찌, 팥, 울금, 팔죽 등을 판매하며 참가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농산물의 참 맛과 이웃사랑의 따뜻함을 전달하는 한편 판매수익금은 불우한 이웃을 위해 쓸 예정이다.

사랑나눔 바자회는 지난 8일부터 청국장을 12일부터는 두부를 정성 드려 만들었으며 당일에는 따뜻한 팔죽과 소머리 국밥을 오신 손님들에게 대접해 드렸으며, 부안읍 모산리 전삼례 회원은 "며칠 전까지 김장을 마무리하여 심신이 피로하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마음에 청국장을 띄우고 고객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흐뭇했다.

특히 농가주부모임 및 고향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은 이 행사 외에도 지난날 10일에는 600여 봉의 김장김치를 담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였고, 독거노인의 밑반찬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고 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홈페이지 전면개편 통합고도화 사업 새해 1월 오픈

정읍시 홈페이지가 내년 1월 새롭게 선보인다.

시는 홈페이지 전면개편 및 통합고도화 사업을 오는 26일 완료하고 안정화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초 오픈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관련해 시는 지난 15일 사업 완료 보고회를 가졌다.

이 사업은 지난 10년 동안 운영하던 시 대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시민들이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정부 웹사이트 총량제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관광 등 8개 홈페이지를 통합하는 사업이다.

시는 "스마트폰과 스마트기기에서 기존 홈페이지 이용이 불편해 시 홍보와 정보 제공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며 "이번 개편으로 이러한 부족함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지형 대상지 선정

정읍시, 내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150억원 등 총사업비 250억 투입

지역특화산업 육성·원도심 활력 증진·일자리 창출 등 관련 사업 추진

정읍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중심시가지지형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사업 선정에 따라 내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150억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해, 지역특화산업(떡·차·면·술)으로 살리는 시민경제도시, 정읍을 비전으로 관련 사업 추진에 나선다.

사업은 크게 ▲지역특화산업 육성 ▲원도심 활력 증진과 일자리 창출 ▲메이플케어 행복정읍 기반 구축 ▲역량 강화와 상생기반 구축사업을 축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으로 먼저 특화품목별 중점 거점 확보사업이 추진된다.

내장산떡 문화관과 상화차 체험관, 그리고 패브릭아트 갤러리와 정음악주 체험관 건립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또 100여년을 넘어 전국 대표 전통시장으로서의 명성을 더해가고 있는 상고을 생활장인 육성사업과 정읍 살림길 만들기 사업도 추진한다.

원도심 활력 증진과 일자리 창출 분야로는 뒤편지 딱딱 센터 운영, 상고을시장 빈 점포 창업지원, 정읍 근원

대사 전시관인 '정읍 기억저장소' 조성 등이 추진된다.

또 정읍문화예술인들의 거점공간이 될 정읍문화예술플랫폼 구축, 초산로와 우암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원도심권 자투리땅을 활용해 소규모 문화시설인 문화거점장을 조성하며, 빈 집을 정비해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는 메이플캐스트하우스 사업도 펼친다.

메이플케어 행복정읍 기반구축 사업으로는 노후주택 녹색 리모델링, 집이 없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주는 정읍 청년주택, 시기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노인활동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정읍시니어센터 건립사업을 전개한다.

더불어 상고을시장을 찾는 어르신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상고을 건강 충전소를 조성하고, 조곡천 도심심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주민역량 강화와 상생 기반구축도 주력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이의 일환으로 기존 건물물 리모델링해 원도심 재생사업 촉광센터인 정읍네트워크센터를 구축하고 도시혁신 청년대회 운영, 원도심 주민역량강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마련 등의 원도심 상생기반 구축 사

업 추진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시민 체감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4대 특화산업을 정읍의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이를 통해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함은 물론 관광산업과도 연계·발전시켜 정읍문화관광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 조직인 도시재생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장지원센터도 설립할 방침이다.

김성기 시장은 "시와 시민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발결한 사업에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결실을 거둘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시민 모두가 상생하면서 지역이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그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과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주민협의체 구성을 비롯 도시청안대회 개최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기반을 다졌고, 주민역량도 높였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 '동물약품 수출 국제 컨퍼런스' 열려

동물약품 수출 활성화·연구 사업단 활동 방안 의견 나뉘

동물용 의약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2017 동물약품 수출 국제 컨퍼런스가 지난 15일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컨퍼런스는 동물용 의약품 수출 연구 사업단(단장 선종근 전북대 교수)이 주관했다.

컨퍼런스에는 동물약품 수요가 많은 필리핀과 베트남 우간다의 동물약품 산업 전문가들이 초청된 가운데 수출 연구 사업단과 참여 기업체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동물약품 수출의 활성화와 수출 연구 사업단의 활동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사업단 선종근 단장은 "최근 동물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신구 질병과 바이러스 그리고 축산업과 반려동물 산

업의 발전으로 동물용 의약품 산업 역시 크게 발전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국내 유수의 동물약품 기업체들과 함께 동물용 의약품의 수출 연구 사업을 진행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동물용 의약품 수출 연구 사업단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인 2017년 수출 연구 사업단 기획 지원과제로 선정된 연구 사업이다.

국내 동물약품의 수출 활성화를 과학기술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5년간 국비 22억9000만원을 포함 총 30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정읍시를 비롯 (주)동방, (주)진B&G, (주)아글벳, (주)중앙백신연구소, (주)한동

(주)CT어이오 등의 동물약품 관련 중견기업체 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와 전북대는 ▲정읍지역 내 국제 연구소 연계 ▲참여 업체들의 연구소 분원 설치 ▲수출사업단 사무소 정읍시 설치 등에 대해 협약하고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동물용 의약품 수출 연구 사업단이 정읍을 주요 거점으로 활동하게 됨으로써 3대 국제 연구소와 농축산물 미생물 육성지원 센터 등 관련 연구소들의 활성화는 물론 정읍이 동물 의약품 수출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어촌마을 전진대회 어촌체험마을 분야 고창 하전마을 '장려상' 수상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주관하는 '제12회 전국 어촌마을 전진대회'에서 고창 하전어촌체험마을이 어촌체험마을 분야 장려상을 수상했다.

전국 어촌마을 전진대회는 지난 13일 원도에서 개최됐으며 전국 90개 어촌체험마을 중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7개 어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지평가와 성공 운영사례 어촌마을 전진대회 발표를 통해 '하전어촌체험마을'이 우수 어촌체험마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상금 2000만원도 수여받았다.

하전어촌체험마을은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최대 생산지의 자랑거리인 바지락 및 동죽 캐기, 정지망 어업체제, 갯벌버스터 드라이브, 탐사터 고창갯벌센터와 연계한 갯벌생태인내인 갯벌현장교육 프로그램을 타 마을



과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운영사례로 인정받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지역 유관기관 단체와의 상생협력, 고창의 세계유산, 전통문화 교육 연계 프로그램 개발 전국 수확여행팀 유치 마케팅 등 발전방안을 제시한 점도 높은 평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학교 교장선생님 대상 세계잼버리 설명회

부안군과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은 2023년 제25회 부안 세계잼버리 참여와 붐을 조성하려고 15일 진서면 소재 석포어항장에서 관내 학교 교장선생님 43명을 대상으로 잼버리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잼버리에 대한 주요 설명과 함께 부안지역에서 개최되는 세계잼버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사·학생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교장선생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교사들에게는 지도자 양성과정

참여, 학생들에게는 스카우트 가입과 잼버리 동아리 구성, 1박 2일 스카우트 캠프 등 학교교육과 접목한 스카우트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 조정식 사무처장은 "제25회 세계잼버리가 부안에서 열리는 만큼 부안의 학생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설명회를 가졌다"며 "이를 계기로 교장선생님들의 관심도 제고를 통해 교사들과 학생들의 참여가 활성화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부안군, 2017년도 주택·건축업무 최우수기관 선정

부안군이 전북도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건축 행정업무 분야 등을 평가한 2017년도 주택·건축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는다.

그간 부안군은 올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주택개량 90동, 빈집철거 91동, 빈집활용 빈집임대주택 3동을 지원했으며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 수급자 3가구에 무이자 임대보증금을 지원

하고 저소득계층 66가구에 지방부역, 화장실 등 개보수를 지원해 관내 주민들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왔다.

특히 군은 공동주택 단지 및 공사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 및 보완했으며 관내 시공 중인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지역자재를 사용하도록 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부안=이옥수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by Gangsanmyeongju. The ad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a cartoon bear mascot, and various gift set option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different gift sets with prices and quantities, such as 'GIFT SET 1 3 | 750ml 2ea, 잔 2ea/16%' and 'GIFT SET 6 6 | 500ml 3ea/12%, 375ml 5ea/13%'.